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09년 11월 26일(목)**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 48.9%가 성폭력당할 우려 걱정”

- 한국여성 2명 중 1명은 성폭력당할까 두려워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의 위험과 여성의 안전”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배 포 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포 날짜 : 2009년 11월 26일(목)

언론 담당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보담당 황 애 리

(연락처: 02-3156-7296, 이메일: ari2008@kwdimail.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은 오는 11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국사회의 위험과 여성의 안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포지엄] 한국사회의 위험과 여성의 안전

- 일 시: 2009년 11월 27일(금), 오후 14:30 ~17:0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주 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근 들어 ‘조두순사건’과 ‘은지사건’이 연일 보도되면서 여성과 아동 대상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을 구성하여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여성의 안전을 위한 대응시스템을 요구하는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한국 사회의 각종 위험들을 분석하면서 여성의 위험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 2008년에는 ‘여성에게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의 성별 차이를 분석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제안한 바 있으며,

- 2009년, 2010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될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연구를 통해서도 이제까지 한국사회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다른 위험과 여성위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 올해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3개 기관이 콘소시움을 구성해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안전에 대한 인식과 경험, 대처방안 등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관련 위험들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 그 한 예로, ‘위험 유형별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위험이 잠재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위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범주는 성폭력(강간, 추행 등)으로, 자신이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는 남성은 19.7%인데 비해서 여성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48.9%가 자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 그리고 범죄나 테러, 심각한 병 등의 일반적인 위험과 달리 여성에게만 더 위협을 주는 위험의 또 다른 유형은 성희롱(직장 등지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자신이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남성(25.5%)에

비해서 여성이(43.4%)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위험유형별 위험이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

	남성			여성		
	있다	없다	소계	있다	없다	소계
범죄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911 (65.9%)	471 (34.1%)	1,382 (100.0%)	999 (73.2%)	365 (26.8%)	1,364 (100.0%)
테러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	355 (26.0%)	1009 (74.0%)	1,364 (100.0%)	374 (30.1%)	868 (69.9%)	1,242 (100.0%)
심각한 병에 걸릴 가능성	830 (64.1%)	465 (35.9%)	1,295 (100.0%)	861 (68.3%)	399 (31.7%)	1,260 (100.0%)
음식을 잘못 먹어 건강을 해칠 가능성	1007 (72.7%)	379 (27.3%)	1,386 (100.0%)	1067 (76.9%)	320 (23.1%)	1,387 (100.0%)
자동차 사고로 다칠 가능성	1200 (85.8%)	199 (14.2%)	1,399 (100.0%)	1195 (86.3%)	189 (13.7%)	1,384 (100.0%)
소비재(식품제외)로 인해 건강을 해칠 가능성	878 (65.3%)	466 (34.7%)	1,344 (100.0%)	872 (67.4%)	422 (32.6%)	1,294 (100.0%)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가능성	967 (70.2%)	410 (29.8%)	1,377 (100.0%)	990 (72.4%)	378 (27.6%)	1,368 (100.0%)
성폭력(강간, 추행등)을 당할 가능성	270 (19.7%)	1103 (80.3%)	1,373 (100.0%)	630 (48.9%)	658 (51.1%)	1,288 (100.0%)
신체적 가정폭력(가정내에서 일어나는 신체폭력)을 당할 가능성	190 (13.4%)	1223 (86.6%)	1,413 (100.0%)	278 (19.8%)	1128 (80.2%)	1,406 (100.0%)
언어, 정서적 가정폭력(가정내에서 일어나는)을 당할 가능성	308 (21.9%)	1098 (78.1%)	1,406 (100.0%)	398 (28.4%)	1002 (71.6%)	1,400 (100.0%)
귀하의 자녀가 아동 대상 범죄(납치, 아동성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할 가능성	559 (41.9%)	774 (58.1%)	1,333 (100.0%)	634 (47.7%)	696 (52.3%)	1,330 (100.0%)
성희롱(직장등지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당할 가능성	352 (25.5%)	1028 (74.5%)	1,380 (100.0%)	593 (43.4%)	773 (56.6%)	1,366 (100.0%)

- 당일 심포지엄에서는 본원 장미혜 연구위원이 “여성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 인식·실태·대응방안”을 주제로, 이승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가 “한국사회 여성의 안전과 위험 거버넌스”를 주제로,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사회 여성 위험지각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당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향후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심포지엄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붙임 1. 프로그램 순서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웹사이트: www.kwdi.re.kr
 대표전화 : (02)3156-7000, 팩스 : (02) 3156-7007

붙임 1. 프로그램 순서

14:00~ 14:30	등 록	
14:30~ 14:40	개 회 사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사 회	장해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4:40~ 15:10	[주제 1] 여성에게 안전이란 무엇인가? 인식·실태·대응방안 발표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5:10~ 15:40	[주제 2] 한국사회 여성의 안전과 위험 거버넌스 발표 : 이승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교수) 토론 : 김영범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15:40~ 16:00	휴 식	
16:00~ 16:30	[주제 3] 한국사회 여성 위험지각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 발표 :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도영임 (카이스트 기능성 게임랩 선임연구원)	
16:30~ 17:00	종합토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 www.kwdi.re.kr)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도자료 끝.